

## 교의학과 인문·사회과학에 대한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본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의 학문적 위치\*

강원돈(한신대학교 교수)

### I. 서론

### II. 기독교사회윤리학의 대상

### III. 기독교사회윤리학에서 교의학과 윤리학의 관계

### IV. 제도적인 것을 보는 신학적 관점

### V. 기독교사회윤리학에서 윤리적 판단 기준과 행위 준칙의 구별

### VI. 제도적인 것에 대한 인문·사회과학적인 분석의 수용

### VII. 맺음말

---

\* “이 논문은 한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이 논문은 2009년 11월 19일 숭실대학교 벤처관 309호에서 열렸던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창립 1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의 학문적 위상”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던 원고를 수정하고 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

• ABSTRACT •

---

Christian social ethics make reflections on earnest attempts of the Christians to realize a better and more righteous life by regulating institutional things. Almost all relations of human beings to their inner lives, other persons and their environments are institutionalized; therefore there must be ethical approaches to these institutional aspects of human relationships from a Christian perspective. I define such attempts as Christian social ethics. In the article I would locate them in relation to dogmatics and to human and social sciences.

Firstly, I deny the traditional thesis that ethics are defined as tasks of dogmatics, as Karl Barth has asserted it strongly. Even if Christian social ethics interpret institutions from a dogmatic perspective, such interpretations cannot take the place of analytical approaches to the reality of institutions. Christian social ethics stand on their own feet if they use dogmatics autonomously in articulating theological foundations of their ethical principles.

Secondly, Christian social ethics can find out the place to integrate human and social scientific analyses of reality into ethical reflections if they distinguish criteria of ethical judgment from maxims of ethical praxis. The former is concerned in the transparence of the world to the kingdom of God and it must make clear what should be done in such a perspective. In the meanwhile the latter is, even in the vision of the Kingdom of God, rather interested in suggesting guidelines or alternative concepts to regulate institutional things under historical conditions of reality. In such connections Christian social ethics cannot escape from analyzing institutional realities with help of human and social sciences.

Thirdly, Christian social ethics must be selective in using human and social scientific analyses of reality. They accept human and social sciences which can help to disclose ideological disguises, to break superstitions of laws which are suggested to be prevalent in history and society, to be responsible for the future and to promote democracy and public integrity through discourses in the civil society.

**Key Words** : critique of ideology, discourse, dogmatics, institution, human sciences, responsibility, social ethics, social-scientific analysis of reality

---

## I. 서론

10

,<sup>1)</sup>

---

1) Heinz-Dietrich Wendland, *Einfuehrung in die Sozialethik*, 2. Aufl. (Berlin/New York: de Gruyter, 1971), 7.

## II. 기독교사회윤리학의 대상

1.

2)

18~19

3),

4)

- 
- 2) *D. Martin Luthers Werke: Kritische Gesamtausgabe, Bd. 32* (Weimar: Boehlau, 1906), 390, 33~38. 이에 대해서는 Martin Honecker, *Grundriss der Sozialethik* (Berlin/New York: de Gruyter, 1995), 29f.를 보라.
- 3) Friedrich Daniel Ernst Schleiermacher, Entwuerfe zu einem System der Sittenlehre, *Werke: Auswahl in vier Baenden, Bd. 2*, hg. und eingel. von Otto Braun (Leipzig: Meiner; Aalen: Scientia Verl., 1911), 561ff.
- 4) Friedrich Daniel Ernst Schleiermacher, Die christliche Sitte nach den Grundsuetzen der evangelischen Kirche im Zusammenhange dargestellt, *Saemtliche Werke, Abt. I, Bd. 13* (Berlin: Reimer, 1843), 166.

.5)

2, 20

“ ”

.6)

---

5) Richard Rothe, *Theologische Ethik*, Bd. IV, 2. Aufl. (Wittenberg: Koelling, 1870), 240, § 1086.

6) Reinhold Niebuhr,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New York [u.a.]: Scribner, 1960), xx.

“ ”

“ ”

” “ ” “

”7)

1970

“

”8)

9)

7) 고범서, 『라인홀드 니버의 생애와 사상』(서울: 대화문화아카데미 대화출판사, 2007), 133.

8) 고범서, 『개인윤리와 사회윤리: 기독교 사회윤리의 방향』(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78), 9.

9) 위르겐 하버마스, 『의사소통행위이론 2: 기능주의적 이상 비판을 위하여』(서울: 나남출판, 2006), 206f.

10)

3.

11)

---

10) Ernst Wolff, *Sozialethik: Theologische Grundfrage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5), 173.

11) Arthur Rich, *Wirtschaftsethik I: Grundlagen in theologischer Perspektive*, 4. Aufl.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Gerd Mohn, 1991), 40. 아르투르 리히가 인간 실존을 관계들의 복합적 총체로 파악하고자 한 것은 개체성을 인간 이해의 일차적 사실로 간주하고자 하는 개인주의적 구상과 대조를 이룬다.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기 위해 이러한 견해를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학자는 투르츠 렌토르프이다. Turtz Rendtorff, *Ethik I: Grundelemente, Methodologie und Konkretionen einer ethischen Theologie* (Stuttgart [u.a.]: Kohlhammer, 1980), 89.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4,  
,

---

12) Arthur Rich, *op. cit.*, 65.

?

### Ⅲ. 기독교사회윤리학에서 교의학과 윤리학의 관계

1.

“ ”

13)

14)

---

13) K. Barth, *Kirchliche Dogmatik*, II/2 (Zollikon-Zuerich: Evangelischer Verlag, 1942), 567: “복음의 직설법이 타당하기에 그 직설법이 끝나는 곳에 축구의 부호가 붙는다. 복음의 직설법은 명령법으로 되는 것이다.”

14) 칼 바르트, 『福音과 律法』, 『恩寵의 選擇 및 福音과 律法』(서울: 향린사, 1964), 96: “율법은 하나님의 은총을 증거한다. 은총을 증거하기에 율법은 복음의 형식인 것이다. 율법이 은총을 증거하기 때문에 율법은 요구요, 주장이요, 회개에로의 부름이요, 예언인 것이다.”(일부 어법 필자 수정)

.15)

.16)

2.

---

15) 바르트는 예컨대 남자와 여자의 상하관계와 선후관계를 내재적 삼위일체의 관계로부터 설명하고 있다. K. Barth, *Kirchliche Dogmatik*, III/4 (Zollikon-Zuerich: Evangelischer Verlag, 1951), 189ff.

16) 하나님의 현실과 인간의 현실이 서로 조응관계(Entsprechung)에 있다는 바르트의 사고 방식은 신앙의 유비(analogia fidei)를 전제한다. 하나님의 현실과 인간의 현실이 존재론적 조응관계에 있을 수 없기에 바르트는 존재의 유비(analogia entis)라는 개념을 허용하지 않고 신앙의 유비를 말한다. 이에 대해서는 K. Barth, *Kirchliche Dogmatik*, II/2, 252~267의 상세한 설명을 참조하라. 더 나아가 바르트는 인간의 현실이 하나님의 현실과 같아져야 하고(gleichnisbeduerftig), 같아질 수 있다(gleichnisfaehig)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같다는 것은 일종의 메타포이지 존재론적 일치를 가리키지 않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K. Barth, *Kirchliche Dogmatik*, IV/3 (Zuerich: EVZ-Verlag, 1965), 906ff.를 보라.

3.

#### IV. 제도적인 것을 보는 신학적 관점

?

1.

19

1

17)

2.

(Positivitaet)

?

18)

19),

20)

17) Karl Barth, *Der Roemerbrief*, 2. Aufl. in neuer Bearb. (München: Kaiser, 1922), 419f.

18) Paul Althaus, *Grundriss der Ethik* (Gutersloh: C. Bertelsmann, 1953).

19) Werner Elert, *Das christliche Ethos: Grundlinien der lutherischen Ethik*, 2. und erneut durchges. und erg. Aufl. / bearb. und hrsg. von Ernst Kinder (Hamburg

21)

(Eigengesetzlichkeit)

22)

---

: Furche-Verl., 1961).

20) Emil Brunner, *Das Gebot und die Ordnungen: Entwurf einer protestantisch-theologischen Ethik* (Zurich: Zwingli, 1939), 194.

21) 이미 주어져 있는 질서의 실정성을 옹호하는 경향에 대해서는 D. Lange, "Schoepfungslehre und Ethik," *Zeitschrift fuer Theologie und Kirche*, Jrg. 91(1994), 162~167; Chr. Frey, *Die Ethik des Protestantismus von der Reformation bis zur Gegenwart*, 2., durchges. u. erg. Aufl. (Guetersloh: Guetersloher Verlagshaus, 1994), 208을 보라.

22) "고유한 법칙"(Eigengesetzlichkeit)이라는 개념과 F. 나우만 이래 이 개념을 둘러싸고 벌어진 비판적 논의에 대해서는 W. Huber, *Folgen christlicher Freiheit: Ethik und*

3.

23)

”24)

”25)

”26)

*Theorie der Kirche im Horizont der Barmer Theologischen Erklarung*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83), 53~58을 보라. 히틀러 체제에서 이 개념이 얼마나 악용되었는가에 대해서는 W. Huber, *op. cit.*, 62~67을 보라.

23) 아래의 3과 4의 설명은 제도적인 것을 다루는 기독교 현실주의의 관점을 디트리히 본회퍼, 귄터 브라켈만, 아르투르 리히의 윤리학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으로서 좋고, 「책임윤리의 틀에서 윤리적 판단의 기준을 정할 때 고려할 점」, 『신학연구』 41 (2000/12), 350~353의 내용을 문맥에 따라 재구성한 것이다.

24) D. Bonhoeffer, *Ethik* (Muenchen: Kaiser, 1981), 133.

25) D. Bonhoeffer, *op. cit.*, 137.



“ ”

“ ”

“ ”

(radikal)

27)

28)

---

26) D. Bonhoeffer, *op. cit.*, 154. “자연적인 것”에 대한 크리스찬 링크의 해석은 경청할 만하다. 그는 디트리히 본회퍼가 “자연 개념의 그리스도론적 근거를 설정하였다.”고 본다. 이에 대해서는 Chr. Link, *Schoepfung: Schoepfungstheologie angesichts der Herausforderungen des 20. Jahrhunderts, Handbuch Systematischer Theologie, Bd. 7/2* (Guetersloh: Guetersloher Verlagshaus, 1991), 523 각주 70을 보라. 따라서 자연을 놓고서 “피조물을 새 피조물로 이끌어가는 계속적인 길(‘과정’)을 말할 수 없다. ... 본회퍼는 ‘타락의 사실을 포함하기 위해서’ 자연적인 것을 피조물적인 것과 구별해서 말한다. 그러나 그는 또한 ‘피조물적인 것을 포괄하기 위하여’ 자연적인 것을 죄에 속한 것과 구별해서 말한다.”(524)

27) D. Bonhoeffer, *op. cit.*, 136f.

28) 이에 대해서는 Bonhoeffer, *op. cit.*, 245. 250f. 253을 보라.

4.

“ ” “ ”

“ ” “ ”

”

”29)

“ ”30)

”

---

29) G. Brakelmann, *Abschied vom Unverbindlichen. Gedanken eines Christen zum Demokratischen Sozialismus* (Guetersloh: Guetersloher Verlagshaus, 1976), 20f.

30) A. Rich, *Wirtschaftsethik I: Grundlagen in theologischer Perspektive*, 4. Aufl., (Guetersloh: Guetersloher Verlagshaus, 1991), 132.

## V. 기독교사회윤리학에서 윤리적 판단 기준과 행위 준칙의 구별

1.

31)

( )

”32)

2.

---

31) 이에 대해서는 I. Kant, Grundlegung der Metaphysik der Sitten, *Werke in Zehn Bänden*, hg. v. W. Weischedel, Bd. 6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75), 51. 126.

32) R. Bubner, *Geschichtsprozesse und Handlungsnormen: Untersuchungen zur praktischen Philosophie*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84), 223.

(middle axiom)

33)

34)

35)

---

33) 올드햄의 “중간공리”에 대해서는 H.-J. Kosmahl, *Ethik in Oekumene und Kirche: Das Problem der “Mittleren Axiome” bei J. H. Oldham und der christlichen Sozialethik* (Goe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0), 55~58을 보라. 그가 중간공리로서 제안한 책임사회는 그 자체로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한 도정에서 더 많은 선과 더 많은 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세상을 형성하는 방식을 규율하는 지침이었다. 이 지침은 1948년 암스테르담 WCC 창립총회에서 에큐메니칼 사회윤리의 페러다임으로 받아들여졌다.

34) 여기서는 윤리적 기준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없다. 윤리적 기준들은 기독교사회윤리학이 어떤 제도의 문제들을 윤리적 도전으로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그때그때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정치제도의 문제들을 다룰 때 설정하여야 할 기준들과 경제제도의 문제들을 다룰 때 강구하여야 할 기준들이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35) 이에 대해서는 A. Rich, *op. cit.*, 222f.



## VI. 제도적인 것에 대한 인문사회과학적인 분석의 수용

1.

(Sachzwang)

,  
,

.36)

?

?

37)

?

38)

?

---

36) 거다 러너 저, 강세영 역, 『가부장제의 창조』(서울: 당대, 2004), 92.

37) 노동사회라는 개념은 한나 아렌트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그녀에 따르면, 20세기 초에 이르러 근대 사회는 노동사회로 전환되었다고 한다. 노동사회는 영원히 반복되는 “자연과의 신진대사”로서의 노동, 곧 “생활의 생산”으로서의 노동을 본위로 하는 사회이며, 일하는 동물로 전락된 노동자들을 생산성의 명령 아래 종속시킨다. Hannah Arendt, *Vita activa oder vom taetigen Leben* (1958), 8. Aufl. (Muenchen/Zuerich: Pieper Verlag, 1994), 11f, 79ff, 88f. 한 마디로 노동사회는 임금노동을 본위로 하는 사회이다. 노동사회에서 노동은 직업상의 지위를 통해 수행되는 영리노동으로 좁게 규정된다.

38) 미셸 푸코는 인간의 몸에 새겨진 노동규율을 생체권력(biopower)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미셸 푸코 저, 박정자 역, 『성은 억압되었는가?』(서울: 나남 1990), 149ff.를 보라.



39)

40)

41)

39) 이데올로기 비판의 역사에 대해서는 존 플라메나쯔 저, 진덕규 역, 『이데올로기란 무엇인가』(서울: 까치, 1982)를 보라.

40) 이와 같은 이데올로기 비판의 과제를 명확하게 설정한 학자는 칼 만하임이다. 칼 만하임 저, 林錫珍 역,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서울: 志學社, 1979).

41) 프로이트의 심리분석과 마르크스의 사회분석을 결합시켜 문명비판의 획기적인 관점과 방법은 Max Horkheimer/Th. Adorno, *Dialektik der Aufklaerung: Philosophische Fragmente* (1947) (Frankfurt am Main: Fischer, 1969)에 실린 「오디세이 신화와 계몽주의」에서 선구적으로 제시되었고, Max Horkheimer, *Eclipse of Reason*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47)에서 “자연의 반란”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작업은 Herbert Marcuse, *Eros and Civilization: a Philosophical Inquiry into Freud* (Boston: Beacon Press, 1956)에서 시도된 현실원칙과 업적원칙의 예리한 구별로 이어졌다.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이론적 프로젝트는 J. Habermas, *Erkenntnis und Interesse: Mit einem neuen Nachwort*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73)에서 학문이론의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가다듬어졌다.

2.

42)

---

42) 이 점을 가장 날카로운 형태로 파헤친 사회철학자는 마르크스일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특히 Karl Marx, *Das Elend der Philosophie*, *MEW 4* (Berlin: Dietz Verlag, 1959), 130, 554를 보라.

43)

---

43) 신자유주의가 경쟁, 시장분배, 가격장치에 대한 미신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분석으로는 강원돈, 「사회적이고 생태학적인 경제민주주의를 향하여」, 『지구화 시대의 사회윤리』(서울: 한울아카데미, 2005), 45~55를 보라.

3.

.

,

.

,

,

.

.

,

,

.

,

.

,

.

,

.

---

44) 세대 간의 정의는 논리적으로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이 요구하는 존재의 권리를 전제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어려운 문제를 다루는 시도들 가운데 하나로는 H. Jonas, *Das Prinzip*

4.

45)

---

*Verantwortung: Versuch einer Ethik fuer die technologische Zivilisation*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84), 84를 보라.

- 45) 위르겐 하버마스 저, 한상진·박영도 역, 『사실성과 타당성: 담론적 법이론과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서울: 나남, 2007), 478~511. 여기서 하버마스는 생활세계적 의사소통을 수행하는 “시민사회”의 역할을 중시한다. 시민사회를 통해 “공적 의견”을 형성하고, 이와 같은 공적 의견의 압력 아래서 의회에서 법을 제정하는 절차를 통해 “의사소통적 권력”이

46)

민주주의적으로 발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 46) 담론윤리학자들에 따르면, 담론이 선하고 정의로운 삶에 대한 공동체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담론의 주체가 강제나 강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토론하여 진리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담론공동체는 현실의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것은 유토피아이다. 위르겐 하버마스는 이 유토피아를 “이상적인 의사소통공동체”라고 불렀다. 이상적인 의사소통공동체는 현실의 의사소통공동체를 규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테면, 현실의 담화 상황이 거짓말과 복선, 체계적으로 왜곡된 언어, 판에 박힌 구호, 불투명한 폭력 등으로 심각하게 꼬여 있고 일그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지속적으로 나누기 위해서는 진실하게 표현하고 바르게 행동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또 그것을 요청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상적인 의사소통공동체는 현실적인 의사소통공동체를 규율하기 위해 “꼭 필요한 가상”이며, 그 가상은 “사실적인 것을 거스르며” 작용하는 힘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J. Habermas, “Vorbereitende Bemerkungen zu einer Theorie der kommunikativen Kompetenz,” J. Habermas/N. Luhmann, *Theorie der Gesellschaft oder Sozialtechnologie: Was leistet die Systemforschung?*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71), 140f.를 보라. 그 동안 담론윤리는 이상적인 의사소통공동체의 의미에 대한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적인 의사소통공동체를 규율하는 방법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해 왔다. 아펠에 따르면, 이상적인 의사소통공동체의 규제적 이념들은 “오직 수많은 실용적인 제약들 아래서만” 구현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를테면, 토론시간의 제한, 개개인의 이성능력과 전문적인 문제해결 능력의 차이, 체제 합리성, 도구적 합리성, 전략적 합리성 등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현실상황 등등이 그가 말하는 제약들이다. 이러한 실용적인 제약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사람들의 삶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공론장에 회부하여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을 민주주의적으로 조직하는 방도를 찾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K.-O. Apel, *Diskurs und Verantwortung. Das Problem des Uebergangs zur post-*

(Volkskirche)

(Oeffentlichkeitsauftrag der Kirche)

(Denkschrift)

.47)

## VII. 맺음말

---

*konventionellen Moral*, 2. Aufl.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92), 202~205를 보라.

47) 이에 대해서는 *Aufgaben und Grenzen kirchlicher Äußerungen zu gesellschaftlichen Fragen: Eine Denkschrift der Kammer für soziale Ordnung der Evangelischen Kirche in Deutschland*, hg. vom Rat der Evangelischen Kirche in Deutschland (Gütersloh: Guetersloher Verlagshaus, 1970), § 32를 보라.





•  
•  
,  
,  
,

### 참고문헌

『기독교윤리』, 『기독교윤리』 41 (2000/12), 350~353.

『기독교윤리』( : , 2005).

『기독교윤리』( : , 2007).

『기독교윤리』 : 『기독교윤리』( : , 1978).

『기독교윤리』, 『기독교윤리』( : , 2004).

林錫珍, 『기독교윤리』( : 志學社, 1979).

『福音 律法』, 『恩寵 選擇 福音 律法』( : , 1964).

『기독교윤리』?』( : 1990).

『기독교윤리』, 『기독교윤리』( : , 1982).

『기독교윤리』 2: 『기독교윤리』( : , 2006).

『기독교윤리』, 『기독교윤리』 : 『기독교윤리』( : , 2007).

Althaus, Paul. *Grundriss der Ethik*. Gutersloh: C. Bertelsmann, 1953.

Apel, K.-O. *Diskurs und Verantwortung: Das Problem des Uebergangs zur postkonventionellen Moral*. 2. Aufl.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92.

Arendt, Hannah. *Vita activa oder vom taetigen Leben* (1958). 8. Aufl. Muenchen/Zuerich: Pieper Verlag, 1994.

Barth, Karl. *Der Roemerbrief*. 2. Aufl. in neuer Bearb. Muenchen: Kaiser, 1922.

Barth, Karl. *Kirchliche Dogmatik. II/2*. Zollikon-Zuerich: Evangelischer Verlag, 1942.

- Barth, Karl, *Kirchliche Dogmatik. III/4*. Zollikon-Zuerich: Evangelischer Verlag, 1951.
- Barth, Karl, *Kirchliche Dogmatik. IV/3*. Zuerich: EVZ-Verlag, 1965.
- Honecker, Martin, *Grundriss der Sozialethik*. Berlin/New York: de Gruyter, 1995.
- Bonhoeffer, D. *Ethik*. Muenchen: Kaiser, 1981.
- Brakelmann, G. *Abschied vom Unverbindlichen: Gedanken eines Christen zum Demokratischen Sozialismus*. Guetersloh: Guetersloher Verlagshaus, 1976.
- Brunner, Emil, *Das Gebot und die Ordnungen: Entwurf einer protestantisch-theologischen Ethik*. Zurich: Zwingli, 1939.
- Bubner, R. *Geschichtsprozesse und Handlungsnormen: Untersuchungen zur praktischen Philosophie*.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84.
- Elert, Werner, *Das christliche Ethos: Grundlinien der lutherischen Ethik*, 2. und erneut durchges. und erg. Aufl. bearb. und hrsg. von Ernst Kinder. Hamburg : Furche-Verl., 1961.
- Frey, Chr. *Die Ethik des Protestantismus von der Reformation bis zur Gegenwart*, 2. durchges. u. erg. Aufl. Guetersloh: Guetersloher Verlagshaus, 1994.
- Habermas, J. "Vorbereitende Bemerkungen zu einer Theorie der kommunikativen Kompetenz". J. Habermas/N. Luhmann, *Theorie der Gesellschaft oder Sozialtechnologie: Was leistet die Systemforschung?*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71.
- Habermas, J. *Erkenntnis und Interesse: Mit einem neuen Nachwort*.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73.
- Horkheimer, Max. *Eclipse of Reason*.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47.
- Huber, W. *Folgen christlicher Freiheit: Ethik und Theorie der Kirche im Horizont der Barmer Theologischen Erklarung*.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83.
- Horkheimer, Max/Theodor Adorno, *Dialektik der Aufklaerung: Philosophische Fragmente* (1947). Frankfurt am Main: Fischer, 1969.
- Jonas, H. *Das Prinzip Verantwortung: Versuch einer Ethik fuer die tech-*

- nologische Zivilisation*.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84.
- Kant, I. Grundlegung der Metaphysik der Sitten. *Werke in Zehn Baenden*. hg. v. W. Weischedel, Bd. 6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75).
- Kosmahl, H.-J. *Ethik in Oekumene und Kirche: Das Problem der "Mittleren Axiome" bei J. H. Oldham und der christlichen Sozialethik*. Goe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0.
- Lange, D. "Schoepfungslehre und Ethik". *Zeitschrift fuer Theologie und Kirche*, Jrg. 91 (1994), 162~167.
- Link, Chr. *Schoepfung: Schoepfungstheologie angesichts der Herausforderungen des 20. Jahrhunderts*. Handbuch Systematischer Theologie. Bd. 7/2. Guetersloh: Guetersloher Verlagshaus, 1991.
- Luther, Martin. *D. Martin Luthers Werke: Kritische Gesamtausgabe*. Bd. 32. Weimar: Boehlau, 1906.
- Marcuse, Herbert. *Eros and Civilization: a Philosophical Inquiry into Freud*. Boston: Beacon Press, 1956.
- Marx, Karl. *Das Elend der Philosophie*. MEW 4. Berlin: Dietz Verlag, 1959.
- Niebuhr, Reinhold.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New York [u.a.]: Scribner, 1960.
- Rendtorff, Turtz. *Ethik I: Grundelemente, Methodologie und Konkretionen einer ethischen Theologie*. Stuttgart [u.a.]: Kohlhammer, 1980.
- Rich, Arthur. *Wirtschaftsethik I: Grundlagen in theologischer Perspektive*. 4. Aufl. Guetersloh: Guetersloher Verlagshaus Gerd Mohn, 1991.
- Rothe, Richard. *Theologische Ethik*. Bd. IV. 2. Aufl. Wittenberg: Koelling, 1870.
- Schleiermacher, Friedrich Daniel Ernst. Entwuerfe zu einem System der Sittenlehre. *Werke: Auswahl in vier Baenden*. Bd. 2. hg. und eingel. von Otto Braun. Leipzig: Meiner; Aalen: Scientia Verlag, 1911.
- Schleiermacher, Friedrich Daniel Ernst. Die christliche Sitte nach den Grundsuetzen der evangelischen Kirche im Zusammenhange dargestellt. *Saemtliche Werke*. Abt. I, Bd. 13. Berlin: Reimer, 1843.
- Wendland, Heinz-Dietrich. *Einfuehrung in die Sozialethik*. 2. Aufl.

Berlin/New York: de Gruyter, 1971.

Wolff, Ernst. *Sozialethik: Theologische Grundfrage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5.

*Aufgaben und Grenzen kirchlicher Äußerungen zu gesellschaftlichen Fragen: Eine Denkschrift der Kammer für soziale Ordnung der Evangelischen Kirche in Deutschland*. hg. vom Rat der Evangelischen Kirche in Deutschland. Gütersloh: Guetersloher Verlagshaus, 1970.

논문투고일 : 2009. 10. 31

심사개시일 : 2009. 11. 10

게재확정일 : 2009. 11. 23

